『신앙과 학문』. 17(1). 127-147.

현대 기독교 여성관 정립을 위한 기독교 교육적 모색

성 호 숙*

논문초록

현대 기독교 여성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독교인의 면모를 보이며, 그 삶의 역할의 지평을 넓혀가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를 향한 기독교의 사명이다.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는 바른 성경적 여성관이 정립되어야 한다. 여성은 하나님께서 뜻을 세워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독립된 개체로서 세상을 다스릴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이고, 인격적 존엄성을 지닌 주체적 존재이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닌 존재이다. 또한 그들은 동일하게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며,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부르신 어떠한 영역에서의 책임과 봉사로부터 그들을 내몰지 않아야 한다. 반면 기독교 여성들은 사회에서 진취적으로 충분한 기량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의 사역과 봉사의 섬김 부분에 있어서도 일관된 삶의 태도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 교육적 접근을 통하여 바른 성경적 여성관을 정립하여 기독교 여성들이 신앙과 삶이 일치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성경적 여성관, 주체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은사, 섬김에의 부르심

* 총신대학교

2012년 01월 31일 접수, 03월 13일 최종수정, 03월 21일 게재확정

I. 들어가는 말

역사적으로 현대만큼 여성들의 삶의 활동 영역이 넓었던 적은 없었다. 현대의 여성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세계에서 여성 정치지도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기업의 CEO들 중에도 여성의 비율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법조계와 의학계, 그리고 예술 방면 등 전반적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여성들의 활약 역시 지대해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학문연구계통에서의 여성들은 두드러진 업적을 내며 공헌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현대의 사회적 특성과 사회구조적 변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등에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여성에게 있어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없다. 현대의 여성들이 하고 있고, 또한 할 수 있는 역할 또는 기능이라면 과거에도 할 수 있었음에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여성들의 활동 반경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의도되었든 그렇지 않았든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는 현재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또 어떤 삶의 의미를 나타내어야 하는가? 기독교 입장에서 현대 여성들의 삶의 모습은 긍정적인 수용을 보일 수도 있지만, 반면 부정적인 거부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럼에도 현대 여성들의 모든 삶의 영역은 기독교 여성들의 삶을 포괄하고 있다. 이 말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여성이라는 존재만으로 삶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삶에서는 현대 여성들의 삶의 영역이 기독교 여성들의 삶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 여성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사회적 영역이 있는 반면, 기독교 여성이기 때문에 누리는 영역도 있다. 그곳은 교회이다. 한국교회의 여성 성도들이 전체 성도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말을 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교회에서 여성의 숫자는 늘었지만,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한되어 있다. 현대 기독교 여성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독교인의 면모를 보이며, 그 삶의 역할의 지평을 넓혀가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를 향한 기독교의 사명이다. 이러한 사명을 위한 단초적 제공이 기독교 교육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현대의 바른 기독교 여성관의 정립을 모색하

고자 한다.

II. 성경적 여성관

성경적 여성관을 언급하는 이유는 기독교인 가정, 학교(특히 신학교)와 교회에서 과연 기독교인 여성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가르침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르침의 결과 기독교인 여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먼저, 여성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구약의 여성관과 신약의 여성관으로 나누어 연구하고자 한다. 구약의 여성관은 주로 창조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신약의 여성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모색할 것이다.

1. 구약의 여성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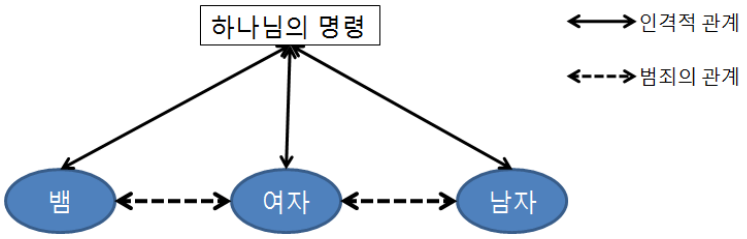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한다. 이것은 인간이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르게 독특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James R. Estep & Johathan H. Kim, 2010: 15).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을 거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고,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받았다(창 1:26).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man)을 만드시고 그들로(them)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인간을 지으시려는 뜻을 세우실 때부터 인간을 남자와 여자의 존재의 합으로 창조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지음 받은 순서와 방법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나서 여자가 지음을 받았고, 남자는 흙으로 지음 받았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여자와 남자의 본질적 존재가치에도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자와 남자의 존재가치는 창조의 순서와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에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워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에 놓여있다. 메리 에반스(Mary J. Evans, 1992)

의 주장처럼 여자의 전존재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의 개별적이고 목적 있는 행위에 의해 직접 창조된 것이다. 이 말은 여자의 전존재적 본질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순수한 자의에 의하신 의지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개체로서 땅을 다스리는 동일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이 사명은 자녀를 낳고 땅을 경작하며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창 1:28). 땅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위임받은 사명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개간하고, 가꾸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여자와 남자 모두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다스림을 말한다. 이러한 다스림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도 유효하다. 다만 그 강도면에서 범죄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고통과 수고가 뒤따를 뿐이다. 인간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시고, 남자에게는 평생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도록 하셨다(창 3:16-17). 그렇다고 해산은 여자의 고유영역이고 땅을 경작하는 일은 남자의 고유영역이 아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자와 남자의 상호보완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신 공동의 사명인 동시에 과업인 것이다. 성경은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helper)로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한다. 그러나 'helper'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21번 나오는데, 그 중 15번이 그의 백성을 돕는 자로서 하나님 자신을 언급하므로 그 의미에 있어서 열등함이나 복종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Andrew Anderson, 1999: 116). 따라서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독립된 존재적 개체로서 그 거룩함에 참예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사명을 성취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격적 개체로서 지음을 받았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대화의 시작은 "땅을 다스리라"(창 1:28)는 것과 "에덴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창 2:16-17)는 것이었다. 헤르만 바빙크(1984)는 첫 번째 하나님의 대화를 인간과 땅과의 관계로, 그리고 두 번째를 인간과 하늘과의 관계로 보았다. 그런데 인간이 땅을 경작하고 개발하고 보호하는 사명은 신적 소명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성취할 수 있다. 이러한 신적 소명을 성취하는 데에는 역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다. 창 1:27-28에 따르면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여자와 남자 모두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지만, 창

2:16-17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남자에게만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여 진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대화의 인격체로 삼으셔서 그 대표성을 띠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명령을 어긴 여자에 대해 부과하신 엄한 형벌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발하는 동시에 그 효력이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더 나아가 온 우주에도 동일한 무게로 주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범죄한 주체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진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 하물며 뱀에게까지 인격적인 객체로 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죄의 전이의 방향은 뱀에서 여자에게로, 여자에게서 남자에게로 나아간다. 뱀은 죄의 함정을 만들어 빠뜨림으로서 죄의 발단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단지 여자하고만 관계를 맺고, 여자는 뱀과의 관계에서 전이된 죄를 남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그대로 전이시키고, 남자는 여자와의 관계에서 죄가 전이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데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림1] 상호 관계성[1)]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에게는 자범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짓도록 한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도 형벌을 내리셨다. 즉, 뱀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배로 다니고 평생 흙을 먹는 형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자를 죄에 빠뜨린 대가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라는 형벌을 받았다. 여자는 자신의 죄로 더욱 큰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또한 남편을 죄에 빠뜨린 대가로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만 받게 되어 평생 땀 흘려

1) 이 그림은 본 연구자가 고안한 것임.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심을 알 수 있다.

2. 신약적 여성관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시되 뜻을 세워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독립된 개체로서 세상을 다스릴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로, 그리고 자신과 더불어 대화하는 인격체로 지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의 구조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더욱 종교생활에서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여 굴종적 삶을 살게 하였다. 구약의 초반에는 사라, 리브가, 라헬, 미리암, 드보라, 아비가일, 훌다 등을 통해 살펴보면 여자들이 활동에 제약이 없이 공적인 삶에서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구약 초기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 후기 유대주의에 가면서 점점 쇠퇴하거나 사라져버렸다.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예속되고, 사회에서의 통치적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성직 역시 금하여졌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탈무드나 미드라쉬에서 보인 랍비와는 대조적이셨다. 여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셨다. 그들을 고치시고(막 5:25-34), 그들과 접촉하기도 하셨다(마 8:14-15). 그들과 사적으로 가끔은 공적으로 개별적인 대화를 나누셨고(요 4:7-24; 11:17-44),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눅 10:38-42).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남자 인물을 비유로 들기도 하지만 여자 인물을 비유로 드시는 등(눅 15:3-10) 결코 여자를 무시하거나 얕보지 않으셨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딸들”(눅 13:16)이라고 언급하심으로 남자와 동등한 영적 지위를 분명히 하셨다(Stephen B. Clark, 1980: 239-242). 이렇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여자를 대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올바른 여성관을 세울 수 있다.

먼저, 여자는 수동적인 객체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적 존재이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대하셨다. 예수님은 여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깊은 대화를 나누셨다. 결코 중간에 어떠한 매개체를 두지 않으시고 여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셨던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독립된 개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눅 10:38-42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듣기위해 그 발 앞에 앉았다. 그

리고는 열심히 그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제지해 달라는 마르다의 요청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권장하셨다. 그 이유는 복음 듣는 일이 좋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은 여자와 남자의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음 받은 개별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라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요 4장)를 예로 들자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먼저 여자에게 접근하시면서 자신의 사역 안에 초청하셨다. 그리고 그녀의 삶을 직접적으로 터치하심으로 가르침을 실시하셔서 영적인 깨달음을 불러일으킨 동시에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자가 구원의 사역에 주체적 존재로 참여하도록 하신 것은 창조의 본질로의 회복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신 것은 남자와 여자 모두 독립적인 주체로서 행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여자를 주체적 존재로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자를 주체적 존재로 대할 것을 말씀하셨다. 마 5:28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는 말씀은 여자를 욕망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행위가 이미 간음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여자는 더 이상 어떠한 목적을 위한 객체가 아니고 인격적 존엄성을 지닌 주체적 존재임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행하신 천국복음 선포와 그 가르침 속에 여자를 적극적으로 초청하셨다는 것은 여자가 객체적 존재가 아닌 주체적인 인격체라는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죄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창조 때의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 말은 곧 창조 때의 인간의 상태를 회복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책임 있는 인격적인 존재였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달하심으로 그 나라 안으로 초청하셨다. 천국 복음을 듣던 많은 여자들이 그 나라로의 초청에 응하여 기꺼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여자들 스스로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당시 유대관습을 깨는 것으로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도 역시 육적, 영적인 완전함을 추구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가 단지 남자에게 종속된 하위 개념의 가치를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닌 독립된 개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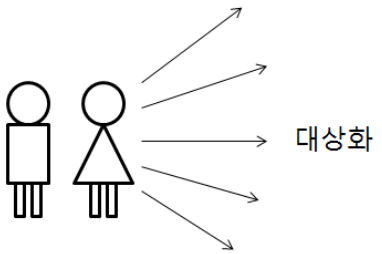
존재라는 것을 말해준다.

III. 현대사회와 기독교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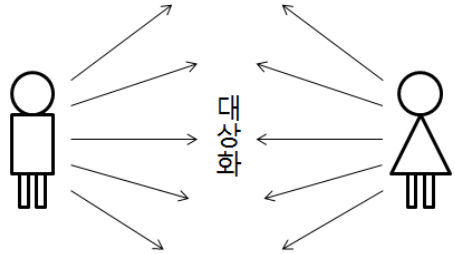
현대사회를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라고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나'를 중심으로 주변을 대상화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기초로 한 구조화된 설명을 거부하고, 드러난 현상에 대한 결정론적 설명방식 역시 거부한다는 것이다(윤근섭, 1999: 115). 이러한 특징은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현대사회의 여성관과 기독교 여성관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1. 현대사회의 여성관

모더니즘(modernism)은 '나'라는 주체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 타자(타인과 세계, 자연 등)를 대상화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를 두고 타자에 대한 이성적 파악과 정복을 통해 세계를 경영하고 기획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모더니즘은 주체와 타자, 이성과 감성, 문명과 자연 등 이항대립의 구도 속에서 남성 중심적 패러다임을 형성하여 여성을 타자, 감성적 존재, 그리고 자연으로 주변화하고 대상화하였다. 이러한 모더니즘의 패러다임은 특별히 여성관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켜 여성을 타자 상태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존재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김영희, 1994: 58).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여성의 타자성이야말로 남성 중심적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윤근섭, 1999: 116). 그런데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여성관과 타자성으로서의 여성관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맥상통하는 관점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여성관은 남성 중심에서 비롯된 대상화된 존재가 아닌 남성과 마찬가지로 중심적 위치에서 대상화하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그림2], 타자성으로서의 여성관은 남성의 지배를 벗어난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남성 중심적 구조를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림3].



[그림2]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여성관



[그림3] 타자성으로서의 여성관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성관은 더 나아가 여성이라는 범주 자체를 해체하려는 경향까지 나아간다. 다시 말해서, 여성은 하나의 범주가 아닌 어떤 특정한 본질이나 주어진 공통점을 지닌 실체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관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것을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대상화하여 절대가치를 배제하므로 여성의 범주 자체도 해체하여 남성과 대립되는 이항구조를 타파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개념은 남성과 대립된 여성보다는 여성들 내부의 차이, 그리고 여성의 삶이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들의 다양성을 강조한다(김영희, 1994: 59). 포스트모더니즘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성들의 다양한 삶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여성의 다양한 사회활동참여를 유발하도록 돕고 있으며, 실제로도 여성의 정치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특별히 현대 여성 CEO의 성공스토리가 더 이상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지 않을 정도로 흔한 것이 되었고, 여성을 상사로 둔 남성이 더 이상 불평을 표현하지 않는 일 등은 포스트모던 사회에서의 여성관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여성의 혹은 여성적인 직업, 남성의 혹은 남성적인 직업이라고 분류된 각 직업군에 남성과 여성의 교체적 참가율의 상승은 여성들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의 변모를 반증한다. 여성의 취업률이 1982년 5,767,000명에서 20년 후인 2003년에 9,397,000명으로 61% 증가하였다. 2003년 여성취업자 중 고졸자 이상이 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1982년에 비해 5배가량 증가한 수치를 나타낸다. 특별히 그중에서 여성의 전문기술 및 행정관리직의 비율이 17%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진출과 참여의 증가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용노동부, 2005).

2. 현대적 여성관과 성경적 여성관

현대사회에서 여성을 향한 대체적인 시각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과 사회의 각계각층에서의 활약상을 통해 살펴볼 때 삶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의 긍정적인 여성관은 여성의 존재적 의미에서의 긍정적 시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근대적 여성들은 가정에 국한된 일에만 강요당함으로서 자신들의 재능이 쓸모없이 되어 버리고, 좌절당하였지만, 현대 여성들은 모든 기회와 책임, 의사결정에 있어서 남녀 구분 없이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과 선택에 따라 삶을 추구하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Wayne Mack, 1972: 3). 이러한 현대적 여성관을 구약의 여성관과 신약의 여성관과 비교 분석함으로서 현대의 올바른 기독교 여성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현대적 여성관과 구약의 여성관의 비교

먼저, 여성의 주체적이고 독립적 존재라는 의미는 그 자신의 능력과 선택에 따른 책임 있는 존재라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 여성들은 모두에게 주어진 진학, 취업, 결혼 등에 있어서 취사선택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표출과 정책적 찬반에의 참여, 그리고 참정권과 같은 권리에 있어서 그에 따른 책임 및 의사결정권을 주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뜻을 세워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독립된 개체로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말씀과 부합한다. 여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여자가 단순히 삶을 영위하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자신의 삶을 지속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그 삶과 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한다. 여자가 세상을 다스릴 사명을 부여받는 존재라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에 놓여있으며, 능동적 행함이라는 실천적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현대 여성들이 자연보호운동과 전쟁반대운동에 가담하거나 빈곤국 아동들을 돌보는 일, 인권탄압에 대항하는 일 등은 모두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

다. 여자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상을 다스리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일에 그 존재의 이유를 든다면 현대 여성들의 행하는 삶은 성경적 여성관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현대 여성들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주체적으로 행한다는 사실은 여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인격체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성경적 여성관과 일치한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대화를 나누실 때 어떠한 매개체나 매개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직접 여자를 대하셨다.

그러나 현대의 주체적, 독립적 개체로서의 여성관이 그 본질에 있어서 성경적 여성관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주장하는 타자성으로서의 여성관은 남성의 지배를 벗어난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남성 중심적인 구조를 해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여성이라는 범주 자체를 해체하려는 경향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여성관이 여성이라는 존재를 남성과의 이분법적 존재론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인간은 남성과 여성이 공존할 때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Wayne Grudem, 2002: 87). 남성은 여성이 존재할 때 하나의 인격체로 형성되는 것이고, 여자 역시 남성이 존재할 때 하나의 인격체로 발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두 인격체로 나누어 창조하시므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구별을 두셨다. 인간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라는 두 인격체 안에 담지되어 있다. 이 땅에서 번성하며 세상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이 남성지배적인 사회구조를 변혁하려는 의도로 남성을 대상으로 적대적 이중구도를 만들고서 여성 스스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개체로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본질에서 벗어난 것에 불과하다. 구약시대에서조차 사라, 한나, 룻, 나오미, 그리고 수넴여인 등 많은 위대한 여인들이 그 시대로부터 존중과 공감을 얻었다.

(2) 현대적 여성관과 신약의 여성관의 비교

현대적 여성관에서 여성의 주체적이고 독립적 존재라는 의미는 그 자신의 능력과 선택에 따른 책임 있는 존재라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구약의 여성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여성관과도 부합된 내용을 담고 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행하실 때, 여자를 구분 지어 성별이나 지위나 신분 등으로 인한 어떠한 한계를 짓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조차 어떠한 저지도 하지 않으셨다. 여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감은 주체적인 의식과 비의존적 자의로 인해 선택적 행동을 보인 독립적 개체로서의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여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심으로 여자를 직접적인 대화의 대상자로 삼으셨다. 이 말은 여자가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체적인 인격체로서의 여성관은 현대의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여성관과 타자성으로서의 여성관이 여성인 'I'가 중심이 되어 다른 존재(you, he/she)나 사물(it)을 대상화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현대 여성들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모든 활동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그 반증이 된다. 그런데 현대 여성관이 이러한 여성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남성 지배적인 사회구조와 여성이라는 범주를 해체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 여성관과 상반되는 견해이다. 이러한 현대 여성관은 남성지배적인 사회가 여성을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동반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단지 피지배적 대상으로 삼아 강요하고 억압했던 역사적 사실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지배적'에 해당하는 영어 'dominant'는 음악, 생물, 그리고 색채학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음악에서는 5도의 주음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색채학에 있어서는 많은 색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그중 가장 지배적인 색을 말한다. 그리고 생물학에서는 이종개체 간에 우열의 관계를 이루어 강대한 것이 약한 것을 압박하는 우위종을 뜻한다. 여성은 남성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어 관계를 맺으며 사회구조를 형성하되, 여성은 그들에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 그 분야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남성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 그 분야에서 뛰어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지배적'인 구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신실한 여성들로 인하여 철저히 남성지배적인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기독교신앙이 로마제국에 전파되고 급기야 서양국가 전반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다. 기독교신앙이 사회적 기본원리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주사회가 형성되었고, 그에 따라 여성의 인권이 보장받게 되는 순환적 기능이 작동되는 것이다. 과거의 이러한 여성들은 남성의 지배를 벗어

나기 위해 이분법적인 존재론적 구도를 형성함으로 그 시대의 사회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성들이 남성과 더불어 또는 남성을 대상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성경적 삶의 원리를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라는 범주를 해체하여 남성지배적인 사회를 변혁하려는 것은 남성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사회적 삶을 형성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억압하고 강요하는 지배적 사회를 초래하게 된다. 여성의 독특하고 특별한 재능을 인정하는 범주를 여성 스스로 해체함으로 평등한 주체적 인격체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여성 스스로 그 범주를 지키고 그 분야에서 지배적이 됨으로 도리어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이다.

IV. 현대 기독교 여성관 정립을 위한 기독교교육

현대 기독교 여성들은 비기독교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진취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개발하고, 자신의 분야를 개척하고 확장하는 데에 충분한 기량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그들이 교회에서는 사역과 봉사의 섬김 부분에 있어 수동적 입장을 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피하려는 경향까지 보이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제한된 사역의 영역과 신앙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독특한 특성을 지녔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의 연계성 안에서 기독교 여성들이 신앙을 기초로 한 마땅히 행해야할 행동과 태도를 보이며 삶을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즉, 기독교 여성들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이분법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벗어버리고 서로 일관된 삶의 태도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 여성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동일하게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며,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부르신 어떠한 영역에서의 책임과 봉사로부터 그들을 내몰지 않아야 한다(H. Wayne House, 1990: 175).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 성령의 은사를 받은 존재,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 등이 현대 기독교 여성관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 기독교 여성관을 확고히 하여 신앙과 삶이 일치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기독교 교육적 접근을 시도하

고자 한다. 현대 기독교 여성관이 확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실천적 접근을 통하여 그 여성관이 참된 신념적 지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김종철, 2004: 183). 그러므로 현대 기독교 여성관의 각 구성요소마다 토의내용을 부가하여 좀 더 심층적인 기독교 교육적 모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토의내용은 기독교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그 내용들을 토대로 각 연령대에 맞도록 재고할 수 있다.

1.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

여성은 하나님께서 뜻을 세워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자유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닌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박창우, 2010: 93). 그러므로 여성은 영적으로 지적으로 완성된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지적으로도 열등한 상태로 머물게 되어 완전성은 현저히 떨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존재인 것이다.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유독 여성은 영적인 것은 고사하고 지적으로도 열등한 존재로 취급당하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은 본래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고대 로마나 유대교에서도 동일하였다. 여자는 학습에 있어 이해력이 뒤떨어지고, 정신적 능력이 열등하다는 생각으로 여자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던 것이다(Charles Ryrie, 1958: 10-21).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성의 영적 능력과 지적 능력을 인정하셨다.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낫게 하신 사건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들린 딸을 고치신 사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침을 행하셨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 영적인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마 12:50)고 말씀하심으로 여성이 신앙에 있어서 독립적 위치를 취하도록 하셨다(눅 12:53).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여성들의 지적인 능력까지 인정해 주셨다. 여인이 가져다 감추어 둔 누룩의 비유(눅 13:18-21),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눅 15:8-10) 등 여러 비유의 말씀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신학적 대화를 나누신 일 등은 남녀 불문하고 가르침의 대상으로 여성을 포함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Charles Ryrie, 1958: 44-46).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음으로 영적, 지적 능력을 소유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는 것은 현대 기독교 여성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책임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영적, 지적인 능력을 소유한 존재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좀 더 책임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N. Wolterstorff, 1980: 16).

<토의 내용>

- 창세기 1:26-30을 읽고 여성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에 대해 생각해본다.
  1)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비교하여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살펴본다(창 2:7참조). 이를 통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힌다.
  2) 인간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본다.
  3) 창 2:18-23의 말씀과 더불어 나타난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해 살펴본다.
- 여성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그 영적인 능력에 대해 생각해본다.
  1) 마 12:50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마찬가지라는 바울의 언급과 어떤 면에서 일치하는 지 살펴본다.
  2) 눅 12:53의 말씀이 여성이 신앙에 있어서 독립적 위치를 취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본다.
  3) 마 9:20-22과 15:21-28의 말씀을 통하여 여성의 영적인 능력이 인정받는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본다.
- 여성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그 지적인 능력에 대해 생각해본다.
  1) 예수님께서 남성과 동일하게 연이어 여성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본다(눅 13:18-21; 15:3-10; 마 6:28; 24:40-41).
  2) 요 4:1-42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의 여성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다.
- 여성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기독교 여성으로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2. 성령의 은사를 받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남성과 여성은 지위 상으로는 동등하지만(창 1:27; 갈 3:28), 다른 역할을 위해 창조되었다(창 2:18; 고전 11:3; 엡 5:22-24)(Andrew Anderson, 1999: 244). 이에 대한 증거는 성령의 은사에 있다. 성령의 은사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 없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믿는 자들은 각기 성령의 은사에 따라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성과 여성은 같은 한 성령으로부터 각각의 은사를 받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보충하여 완전한 것이 되도록 의도하셨으므로 남성의 연약함과 여성의 연약함이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니고 서로에게서 다른 강한 점들을 끌어내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J. Piper and W. Grudem ed. 1991: 49).

고전 12:8-10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성령의 은사는 그에 따라 다른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역할을 위해 성령의 은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여성들이 성령께서 주신 능력에 따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럴 때에 여성들이 신앙생활에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을 탈피하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의 이러한 태도가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일관된 삶의 태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적 차원에서 성령의 은사에 따른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모색할 수 있다.

<토의 내용>

- 고전 12:8-10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와 그에 따른 각기 다른 역할수행이라는 말씀과 여성평등의 개념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다. 평등은 개인차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역할이 주어질 때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성령의 은사에 따른 교회에서의 사역 및 섬김의 종류를 연관시켜본다.
- 성령의 은사는 특별히 남성에게만, 그리고 여성에게만 주어지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남성과 여성이 교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본다.

- 성령의 은사에 따른 교회에서의 역할과의 연계성 안에서 수행할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가령, 지식의 말씀의 은사일 경우, 학교 교사로서의 실용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할 수 있다.)
- 기독교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에 있어 성령의 은사를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 성령의 은사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3.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인 동시에 능력을 갖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부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박창우, 93).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주님의 부르심은 가정을 관리하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함일 수 있고, 복음주의적 전도사역을 위함일 수 있고, 기도사역과 가르치는 사역을 위함일 수 있으며, 특별히 섬기는 사역을 위함일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든, 어느 곳이든, 언제이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러한 원리로 머리됨(headship)은 섬김을 바탕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롬 13:1)이므로 교회에서의 머리됨이든 사회의 어떤 조직체의 머리됨이든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보는 것이 기독교진리에 부합하다. 현대 사회에서 어떤 조직체이든 적지 않은 여성들이 그 머리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물론 그 휘하에는 많은 남성들이 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교회에서 여성들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으므로(고전 11:3) 기독교 여성들의 사회에서의 머리됨 역시 금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찰이 있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조직체에서 머리됨의 위치에 있는 기독교 여성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 여성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이분법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조차 교회에서의 여성의 머리됨은 인정하지 않지만 사회에서의 머리됨에 대해서는 애써 묵인하거나 적극 환영하는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기독교 진리가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여성들의 사회조직 내에서 머리됨을 위해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보였다면, 마땅히 교회 내에서의 활동에 있어서도 반드시 머리됨을 위함이 아니더라도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섬김의 자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회조직에서의 머리됨이 단지 기독교 여성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머리됨의 기독교 원리는 바로 '섬김'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섬김의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위함이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주부로서 자녀양육을 하든, 교회에서 복음전도와 가르치는 일을 하든, 사회에서 머리됨이 되든 그 모든 일들은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에 그 중요성을 두어야 한다. 기독교 여성들이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성경적 여성관을 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독교 여성들이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교육적인 접근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토의 내용>

- 여성은 본질상 남성보다 감성적이고 양육적이라서 교회와 사회에서의 제 역할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거라는 주장이 있다(Georgia Harkness, 1972: 204).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여성의 본질적 특징 중 일부분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이 오히려 여성의 섬김의 다양성을 제한시키는 것이 아닌지 살펴본다.
-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려 하셨다(마 20:28). 이 말씀을 교회에서의 머리됨과 그 섬김의 모습을 대비시켜 생각해본다.
- 기독교 여성들이 사회에서 머리되는 것이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 많은 기독교 여성들은 교회에서 제한된 역할을 수행해야하지만 사회에서는 머리됨의 위치에서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기독교 여성들로 하여금 이분법적 삶의 태도를 야기하지는 않는지 살펴본다.
- 기독교 여성들이 사회적으로는 인정받기 위해, 머리됨을 추구하기 위해 진취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지만 교회에서의 섬김을 위해서는 비교적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V. 나가는 말

현대 여성들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주어진 분야에서 제 역할을 유능하게 해내고 있다. 현대 기독교 여성들 역시 비기독교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진취적이고 주체적으로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조직 내의 머리됨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머리됨이 기독교 여성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혼란스런 마음을 갖게 하여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분법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 그러나 기독교 여성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영적, 지적 능력을 갖고 있고, 동일하게 성령의 은사를 받아 남성과 더불어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리고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러한 기독교 여성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기 위한 것이다. 사회에서 주체적이고 진취적으로 활동하듯이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섬김의 활동을 감당해야 한다. 비록 교회에서의 역할이 제한되어있지만 주어진 성령의 은사에 따라 영적, 지적 능력을 다하여 복음전도, 가르침, 섬김 등의 제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육적 차원에서 성경적 여성관을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 성경적 여성관은 여성이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개체로, 또한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적 여성관은 현대의 여성관처럼 남성을 대상으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개체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더불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를 말한다. 기독교교육을 통하여 기독교 여성들이 바른 성경적 여성관에 입각하여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주체적, 능동적 삶을 살도록 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05).『여성과 취업』.

김영희 (1994). “여성해방론의 여러 흐름.”『여성학 강의』. 한국여성연구회 (편). 서울: 동녘.

김종철 (2004). “실천을 통한 기독교 세계관 정립의 매커니즘 -현대 인식론의 논의를 중심으로-.”『신앙과 학문』. 9(1). 183.

박창우 (2010).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 입양의 이해 및 평가.”『신앙과 학문』. 15(1). 93.

윤근섭・문윤걸・국선희 (1999).『여성과 현대사회』. 서울: 문음사.

Anderson, Andrew (1996). *Men, women and Authority*. 이은순 역 (1999).『남성과 여성』.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Bavinck, Herman (1907). *Magnalia Dei: A Survey of Christian Doctrine*. 김영규 역 (1984).『하나님의 큰 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Evans, Mary J. (1983). *Woman in the Bible: An Overview of All the Crucial Passageson Women's Roles*. 정옥배 역 (1992).『성경적 여성관』. 서울: IVP.

Ryrie, Charles (1958). *The Role of Women in the Church*. 양은순 역 (1983).『교회에서 여성이 할 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Clark, Stephen B. (1980). *Man and Woman in Christ.* Michigan: Servant Books.

Estep, James R. & Kim, Johanthan H. (2010). *Christian Formation*.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Grudem, Wayne (2002). *Biblical Foundations for Manhood and Womanhood*. Ill.: Crossway Books.

Harkness, Georgia (1972). *Woman in Church and Society: A Historical and Theological Inquiry*. New York: Nashville Abingdon Press.

House H. Wayne (1990). *The Role of Women in Ministry Today*. Michigan: Baker Books.

Mack, Wayne (1972). *The Role of Women in the Church*. Cherry Hill, N.J.: Mack Publishing Company.

Piper, John and Grudem, W. (Ed.) (1991).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bmanhood: A Response to Evangelical Feminism*.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Wolterstorff, Nicholas (1980). *Educating for Responsible Action*. Grand Rapids Mi: CSI Publications.

ABSTRACT

A Christian Educational Search for Defining the Modern Christian View of Womanhood

Ho Sook Sung(Part-time instructor, Chongshin University)

That modern Christian women make their appearance as Christians in every areas of life and broaden the roles of those lives is the mission of Christianity toward this age. In order to carry out this mission, the biblical view of womanhood should be defined. Woman is that God created her as the independent individual being in his own image, the being charged with the mission to dominate over all other living things, and the independent being to have the personal dignity and t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herself. Woman also receives the gift of the Holy Spirit, and is called to service the Lord. So, women shouldn't be driven out of the responsibility and service in any areas where God call them. Whereas, as Christian women develop their areas progressively and show their abilities to carve out and broaden their fields in the society, they should take a coherent stand of life for the ministry and service in the church. Because Christian women should live as the independent being to show the behavior and attitude based on faith in all living areas. Through Christian educational approach, the biblical view of womanhood is properly defined and Christian women may live as the independent being in accord with faith and life.

Key Words: the biblical view of womanhood, the independent being, the image of God, the gift of the Holy Spirit, the calling for service